

# 남산 냉골 마애불 '붉은입술' "화강암 풍화로 변색"

성익환박사 "채색 아니다" 지질학적 연구발표

경주남산 냉골에 있는 마애 관세음보살상의 붉은 입술이 속설로 전해온 채색이 아니라 석재인 '불국사 화강암'이 열수변질작용에 의해 풍화과정에서 붉은 빛으로 변색된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10일 한국석불연구원(회장 이근후·이대병원 신경정신과 박사) 총회에서 '지질학적 입장에서 본 경주남산 냉골의 관세음보살상'을 주제로 발표한 성익환박사(한국지질연구소 환경지질연구부 책임연구원)의 이같은 연구결과는 석불연구의 지질학, 암석학적 접근으로 사도대 불교계와 학계의 주목을 받고있다.

성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경주남산의 마애보살상의 붉은 입술은 경주를 중심으로 분포된 '불국사 화강암' 내 함유되어 있는 카리장석이 특이하게 많이 모여있는 부분이 열수변질작용에 의해

2차광물인 철(Fe) 등과 결합하여, 풍화과정에서 붉은 빛으로 변색했다는 것. 따라서 1천여년전 신라의 선조들은 카리장석이 농집돼 있는 부분을 입술부위로 정해놓고, 광물인 관세음보살상을 조각해 3차원적인 공간감과 시각을 갖고 조각한 탁월한 솜씨를 지녔다고 성박사는 평했다. 그래서 마애석불은 마치 살아 숨쉬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박사는 최근 부처를 감실 부처님의 입술과 후분벽화(?)가 채색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냉골 마애보살상과 같이, 화강암의 열수변질작용에 의한 변색이 화실시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경주 남산이 지질학과 암석학적으로 단일 구조의 일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위영린 기자



경주남산 냉골의 마애 관세음보살상의 입술이 붉은 빛으로 변색된 채색이 아니라 석재의 변색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제5회 보리방송문화상 불교TV 부문 대상을 수상한 '한국의 명찰' 전국의 900여개기 있는 사찰을 영상으로 담았다

## btn '한국의 명찰' BBS '무명을 밝히고' KBS '팔만 대장경' 대상

제5회 보리방송 문화상

불교발전엔 공헌한 방송프로그램에 주는 제5회 보리방송문화상 일반TV 부문에 '팔만대장경' (서울KBS·PD 유동중), 불교방송 부문에 '무명을 밝히고' (불교방송·PD 진영조), 불교TV 부문

에 '한국의 명찰' (불교TV·PD 김양·노정규) 등이 대상으로 선정돼 지난 9일 부산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보리방송문화상은 '일반TV' '불교방송' '불교TV' 등 세 부문으로 나누어 선정 시상되는데 불교TV 부문은 올해 신설됐다. 각 부문별 우수상은 일반TV 부문에 '몽려 김진민' (전주KBS·PD 이규현), '호남불교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불교광주방송·PD 박주원), '자비의 현수현안' (불교TV·PD 김오중) 등.

◆ If he who desires sensual pleasures is successful, he certainly becomes glad-minded, having obtained what a mortal wishes for.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생각대로 잘 되면, 그는 인간이 갖고자 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한다.

◆ But if those sensual pleasures fall the person who desires and wishes (for them), he will suffer pierced by the arrow of pain.

욕망을 이루고자 달욕이 생긴 사람이 반일 욕망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그는 화살에 맞은 사람

처럼 괴로워하고 번민한다.

◆ He who avoids sensual pleasures as he would avoid treading upon the head of a snake with his foot, such a one, being thoughtful, will conquer this desire.

뱀의 머리를 밟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처럼, 모든 욕망을 피하는 사람은 바른 생각을 하고, 이 세상 of the evildoer를 넘어선다.

◆ He who covets extensively such pleasures as these, fields,

goods or gold, cows and horses, servants, women, relations.

농토·잡터·황금·마소(馬牛)·노비·부녀자·친척 그 밖에 여러 가지를 탐내는 사람이 있다면,

◆ Sins will overpower him, dangers will crush him, and pain will follow him as water pours into a broken ship.

죄악이 그를 이기고 위험이 그를 쫓는다. 또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마치 파손된 배에 물이 새

###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77

Therefore let one always be thoughtful, and avoid pleasures; having abandoned them, let him cross the stream, after bailing out the ship, and go to the other shore.

그래서 사람은 항상 바른 생각을 지키고 모든 욕망을 회피해야 한다. 배에 스며든 물을 퍼내듯이, 그와 같은 욕망을 버리고 강을 건너 파안에 도달한 사람이 되라.

\*bread (v) 잘못하여) 밟다  
\*cover (v) 몹시 바라다, 감당하다  
\*pour (v) 흘러나오다, 넘쳐흐르다  
\*other shore 파안(彼岸)

## 부처님의 미소 ③ <글>



아 적도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할까 말 살아는 분이 있다면 나는 그 분들에게 주저없이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절을 열심히 하십시오. 절만한 게 없습니 다."

지난 수개월 동안 절을 해 오면서 직접 경험 한 것들과 스스로 놀랄 만큼 변화된 내 모습이나 이 주장을 증명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내 친구 얘기를 소개하겠다. 이미 밝힌대로 내 믿음의 동반자이자 감시자(?)이기도 한 그 친구는 마흔살이 되어 결혼이라는 걸 했다.

마흔까지 혼자를 고집한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나이에 결혼을 결정하기도 쉬운 일은 아닐 터, 알던데 또한 친척으로 남편이 자손 귀한 집안의 장남이었다. 가문의 역사적 사명과 결혼을 한 셈이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3배를 올린 다음 천수경 독송과 함께 5백배를 시작한다. 고귀하신 부처님 밑 아래 나의 가장 높은 버 리를 바치고 절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새기고 나면, 언제나 즐겁고 좋은 일만 바라며 끝없는 갈등과 인망 속에서 이타 지향하며 살아온 남들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 없다.

이런 나의 방식이 생애 거지는 아니었는지 절을 시작한 다음부터 남편이 아이를 무척 좋아한다. 일상이 질러대던 고향도 자연스레 미 소로 바뀌니, 집안 가득 그윽한 국화향이 풍기 는 듯하다. 그래, 매일 5백배의 절이란 국화향 을 만들어내는 찬 서리와 같은 것이 아닐까. 어쨌든 지금의 나는 남의 허물을 보아도 쉽게 웃으면서 남길 수 있게 되었고 남들이 귀찮아 하 는 일도 먼저 찾아서 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보잘 것 없는 정도임을 잘 안다. 까치발을 해서야 간신히 부처님의 발끝이 라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나 할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친구가 108배를 마친 다음 그냥 앉아서 염주만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내심 이상하다 여기면서 5백배를 마친 다음 법당을 나와 친구에게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았다. 그 런데 그게 아니란다. 나이 마흔 한 살에 임신을 했다는 게 쪽스러웠던 한참을 망설이더니 속 내를 털어놓았다.

'오, 부처님 너무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간의 욕망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일, 당신의 가피가 아니었다면 어찌 이를 수 있었겠습니까.'

내 친구는 나보다 1백배에 회합의 날을 늦출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새로운 생명이 지켜보 는 가운데, 나보다 훨씬 잠깐만 1백만배를 올릴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아니 기쁘냐.

## "기도를 몰라 망설인다면 절을 열심히 하십시오 집안에서 향기가 납니다"



그림·이준식

배석자 <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곡2리>

**날씬한 통화료가 보인다**

10초에 9원!

PCS 016이 통화료를 다이어트 했습니다. 주말이나 저녁시간에 이동전화의 이용이 많은 직장인이나 대학생을 위한 PCS 016 스페셜요금 - 10초당 통화료가 9원으로 통화료에 균형을 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메신저를 위한 플러스인터넷, 통화료가 적은 고객을 위한 라이트, 통화료가 많은 고객을 위한 프리 200, 300, 400 등 PCS 016은 고객의 통화량에 따라 부담없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요금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통신전문가만이 제공할 수 있는 날씬한 맞춤요금 - PCS 016에서만 보입니다.

**PCS 016**

한국통신프리텔이 만든 PCS 016 - 통신만큼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 통신전문가만이 제공할 수 있는 PCS 016 맞춤요금제도

● 고객의 취향에 따른 선택요금제

상품명	기본료 (1개월)	통화료 (10초당)		
		평상	월간	심야
스페셜 (다제 및 주말에 통화료가 9원인 고객)	13,000원	38원	9원	9원
라이트 (월 통화량이 평균보다 적은 고객)	10,000원	35원	25원	18원

● 월 통화량이 많은 고객용 선택 요금제

상품명	프리200	프리300	프리400
무요통화시간	200분	300분	400분
기본료(1개월)	36,000원	45,000원	53,000원
통화료 (10초당)	평상 18원, 월간 14원, 심야 10원	평상 17원, 월간 13원, 심야 10원	평상 15원, 월간 12원, 심야 9원

● PCS 016의 표준요금

구분	요금	비고	
기본료(1개월)	16,500원		
통화료 (10초당)	평상	19원	평일 오전 8시 ~ 오후 9시
	월간	15원	평일 오전 6시 ~ 오전 8시, 오후 9시 ~ 오후 12시, 공휴일 오전 8시 ~ 오후 12시
	심야	10원	매일 오후 12시 ~ 다음날 오전 6시

● 플러스 인터넷 (월 6,000원) PCS 016을 가입하시는 모든 고객은 월 6,000원의 추가 월정액만 부담하시면 KORNET을 매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로 신청하는 경우보다 50% 할인)

10월 이전 예약가입 고객의 실가입 전환과 예약 가입 기간을 97년 12월까지 연장합니다

● 11월 실가입 전환시 혜택

- 가입비 5만원 전액면제 - 97년 11월~12월, 2개월간 기본료 면제
- 97년 11월~12월, 2개월간 부가서비스 면제

● 12월 실가입 전환시 혜택

- 가입비 5만원 전액면제 - 97년 12월 한달간 200분, 98년 1월 한달간 200분 무료통화 제공 (국제전화, 700서비스, 114내선 등은 유료)
- 97년 12월 ~ 98년 1월, 2개월간 부가서비스 면제

● 11월 가입 고객중 프리200, 300, 400을 선택 또는 변경하신 고객은 98년 3월 1일 이후 요금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영업소 및 대리점으로 문의하십시오.

**PCS 016 포교기금 부다피어**

PCS 016 가입시 아래 '포교기금 부다피어' 가입처로 신청하시면 고객에게는 조금의 부담도 없이 납부 통화료의 5%가 통일포교 및 불우이웃돕기에 사용됩니다.

● PCS 016 포교기금 부다피어 전국 가입처

서울지사 02-732-1522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9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사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인천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43-5599  
 청주지사 032-461-3461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전주지사 0591-747-0106  
 부산행안 051-84-0735 광주지국 0416-55-0020  
 고양지국 0344-912-2323